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3부 · 적극적 표지 6: 참된 겸손

『신앙감정론』 제3부 「진정으로 은혜로운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중 적극적 표지 6, 인쇄 440~479쪽

🧭 흐름 한눈에

에드워즈는 먼저 두 겸손을 가릅니다. 죄를 깨닫고도 마음은 그대로인 '율법적 겸손'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기꺼이 낮아지는 '복음적 겸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복음적 겸손을 참 믿음의 핵심으로 내세운다는 점을 많은 구절로 보입니다. 이어 이 장의 대부분을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데 씁니다. 영적 교만은 겸손한 척하면서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체는 '율법적 영'이고, 두 가지 표지로 드러납니다. 남과 비교해 내 신앙을 높이 치는 것, 그리고 내 겸손을 높이 치는 것입니다. 끝으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심령이 가난한 거지'로 그립니다. 거룩한 감정은 모두 깨진 옥합 같은 상한 심령에서 흘러나온다는 그림으로 장을 닫습니다.

🪪 표지 카드

표지 6(적극): 은혜로운 감정에는 언제나 복음적 낮아짐이 함께 따라온다.

여기서 복음적 낮아짐이란 내가 철저히 무능하고 추하다는 것을 아는 감각입니다. 그 앎에 걸맞게 마음 자세까지 바뀐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증거가 되는 이유는, 복음과 새 언약 전체가 사람의 마음을 낮추려고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겸손이 없다면 감정이 아무리 높고 신앙고백이 아무리 화려해도 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 1. 두 겸손: 율법적 겸손과 복음적 겸손

에드워즈는 겸손을 두 종류로 나눕니다. 율법적 겸손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겪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돕는 일반 은혜로 생기고, 하나님의 크심과 두려운 위엄, 율법의 엄격함을 볼 때 생깁니다.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이 본 하나님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겸손을 겪는 사람은 자신이 죄책을 지고 있고 진노를 받아 마땅하며 스스로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죄가 얼마나 추한지는 보지 못하고, 의지가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에드워즈는 최후 심판 날의 악인과 마귀도 이런 깨달음을 겪지만 교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복음적 겸손은 다릅니다. 성령의 특별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볼 때 생기고, 마음의 성향 자체를 바꿉니다. 율법적 겸손은 절망에 이르러 억지로 엎드리게 하고, 복음적 겸손은 기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율법적 겸손은 복음적 겸손으로 가는 수단으로는 쓸모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에는 영적 선함이 없습니다.

1. 율법적 겸손은 거듭나지 않아도 겪는다
2. 하나님의 '위엄'을 볼 때 생기는 깨달음
3. 복음적 겸손은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볼 때
4. 하나는 억지로 엎드림, 하나는 기쁘게 엎드림
5. 겸손 없는 높은 감정은 참 믿음이 아니다

> **하박국 2:4**
> 교만한 자와 대비해, 의인은 자기 선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
>
>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에스겔 36:26~27, 31**
> 새 마음과 성령을 받은 뒤에야 스스로 자기 죄를 밉게 본다(성향의 변화)
>
> **에스겔 36:26-27** 26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 또 내 영을 너희

에스겔 36:31 그 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에스겔 20:43

은혜로 회복된 백성이 자기 길을 기억하고 스스로 미워함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욥기 42:6

하나님을 뵌 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복음적 낮아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 2. 겸손은 참 믿음의 핵심: 성경의 증언

에드워즈는 성경이 우리 신앙을 판단하는 규범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성경이 겸손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서 특별히 보시는 것으로 거듭 말한다고 하며, 구절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시면서도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시고,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어 사람의 예를 듭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죄인인 여자는 자기 영광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을 개라 불러도 마땅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탕자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다고 했고, 세리는 눈을 들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받아 주셨고, 스스로 의롭다 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1. 성경이 신앙 판단의 규범이다
2.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와 함께 거하신다
3.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간다

시편 51:17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사야 57:15

지극히 높으신 분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심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66:1~2

하늘 보좌의 하나님이 '마음이 가난하고 떠는 자'를 돌보심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2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미가 6:8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5:3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 천국의 첫 조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5:26~27

개라 불림을 받아들인 가나안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18:9~14

바리새인과 세리 —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 3. 자기 부인의 더 어려운 쪽, 위선자가 무너지는 곳

에드워즈는 복음적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큰 의무인 자기 부인의 주된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부인은 내 뜻과 내 영광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여기에는 두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쾌락과 욕심을 거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재물과 쾌락을 버렸지만 자존심과 자기 의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짐승 같은 욕심을 팔아 마귀 같은 욕심을 산 셈입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을 검은 마귀 하나를 내보내고 겉보기에 나은 흰 마귀 일곱을 들인 꼴이라고 표현합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여러 열광주의자와 철학자들도 겉으로만 자기를 부인하며 '영적 교만'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세상을 미워한다고 떠들고 높은 체험을 내세우는 위선자들이 가장 크게 실패하는 곳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들은 “나는 마귀보다 악합니다” 같은 자기비하의 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정말 그럴 수도 있으니 돌아보라”고 하면 상처받고 등을 돌립니다.

1. 자기 부인: 세상을 버림 + 나를 높임을 버림
2. 둘째가 가장 크고 어려운 부분이다
3. 금욕은 자기 의를 더 키울 수도 있다
4. 자기비하의 말이 곧 겸손은 아니다
5. 진짜 겸손은 지적받을 때 드러난다

> **에스겔 16:63**
> 참된 겸손은 부끄러워 다시 입을 열지 못함 — 말 많은 자기비하와 대조
>
> 이는 내가 네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네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 **마태복음 12:45**
> (본문의 '일곱 마귀' 비유가 가리키는 말씀) 겉만 정리된 집에 더 악한 것이 들어옴
>
>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 **골로새서 2:23**
> 몸을 괴롭히는 '겸손'은 지혜 있는 모양일 뿐 (11절에서 에드워즈 인용)
>
>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는 자신의 겸손을 포착하는 것보다 교만을 포착하는 속도가 천 배 이상 빠르다.” (10절의 문장이지만, 이 절의 위선자 모습과 짝을 이룹니다)

📜 4. '율법적 영'의 정체는 영적 교만

어떤 사람들은 '율법적 설교, 율법적 영'을 강하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율법적 영은 생각보다 훨씬 미묘해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의 마음을 오히려 지배하기도 합니다. 에드워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도덕이든 사랑이든 체험이든 믿음이든 겸손이든, 내 안의 선한 무엇을 자랑하는 교만이 곧 율법적 영입니다. 타락한 죄인에게 율법적 영과 영적 교만은 같은 것입니다. 체험을 자랑하는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속으로는 그 체험이 자신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여기고, 하나님도 자신을 그렇게 보신다고 상상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을 믿고 기도하고, 그 체험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체험을 의지해 사는 삶'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체험을 내 영적 상태의 '증거'로만 쓰는 사람은 거기서 정당한 소망과 위로를 얻습니다. 또 행위를 지나치게 깎아내리며 자신을 '복음적인 사람'으로 내세우는 이들이 있습니다. 에드워즈는 이들이 오히려 값없는 은혜의 가장 위험한 원수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종들의 종'이라 부르며 가난한 이들의 발을 씻기는 교황의 꾸민 겸손도 같은 예입니다.

1. 율법적 영 = 내 선함에 대한 교만
2. 율법주의를 욕하는 사람도 빠질 수 있다
3. 체험을 '의지'하면 교만, '증거'로 쓰면 위로
4.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로도 자기를 높인다
5. 사탄은 영적 교만에 가장 노련하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단락은 논리로 전개된다. 같은 논지는 다음 절의 누가복음 18:11이 받친다

📜 5. 영적 교만의 첫째 표지: 남과 비교해 나를 높인다

에드워즈는 영적 교만이 교묘히 숨어 있지만 거의 확실히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두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남과 비교해 내 신앙의 성취를 높이 평가하는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은 속으로 자신이 탁월한 성도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당연한 듯 높은 자리에 앉고, 이끌고 가르치고 지도하는 역할을 자기 몫으로 압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선생으로 대하고 따르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가장 낮은 자리를 자기 자리로 압니다. 모세와 예레미야는 탁월한 성도였는데도 자신이 그 일에 맞지 않는다고 물러섰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가르치기보다 배우려 하고, 말하기보다 듣기를 서두르며, 말할 때도 떨리는 마음으로 합니다.

1. 첫째 표지: 남보다 내가 낫다는 생각
2. 높은 자리와 선생 역할을 당연시함
3. 겸손한 이는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김
4. 모세·예레미야도 “나는 못합니다”
5. 가르치기보다 배우기를 좋아한다

> **누가복음 18:11**
>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 교만의 속마음
>
>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 **이사야 65:5**
>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 남과 비교하는 자기 의
>
>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 **누가복음 14:7–11**

[7]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8]네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9]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10]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여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 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11]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로마서 2:19~20

스스로 '소경의 인도자, 어리석은 자의 선생'이라 확신하는 모습

[19]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20]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빌립보서 2:3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출애굽기 3:11

탁월한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며 물러섬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야고보서 3:1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순복하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 6. '내 체험은 대단했다'는 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체험이 매우 크고 특별했다고 거침없이 말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개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는 것조차 한없이 위대한 일이라는 뜻이라면 맞는 말이고, 겸손할수록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의 체험보다 크다는 뜻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참된 체험은 은혜 없이 생기지 않으므로, 그 말은 결국 “나는 남보다 은혜를 더 받은 탁월한 성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들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은혜 덕분”이라고 덧붙이니 교만이 아니라고 항변합니다.
에드워즈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기를 높였다고 답합니다. 정말 탁월한 성도는 자기 성취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자신을 은혜 안의 어린아이로 여기고, 사랑과 감사가 너무 적음에 놀라고 부끄러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 뒤 얼굴이 빛났지만 정작 자신은 몰랐습니다.

1. “체험이 크다” = “내 은혜가 크다”
2. “은혜 덕분”이라 해도 교만일 수 있다
3.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했다
4. 탁월한 성도는 자기 성취가 잘 안 보인다
5. 모세는 자기 얼굴이 빛나는 줄 몰랐다

마태복음 15:27

부스러기라도 받는 것이 위대한 자비라는 바른 의미의 '큰 체험'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누가복음 18: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8:4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출애굽기 34:29

(본문이 가리키는 장면) 얼굴이 빛나는 줄 몰랐던 모세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 7. 은혜가 클수록 내가 작아 보이는 이유

에드워즈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 은혜가 적어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므로, 그런 분을 내가 얼마나 조금 사랑하는지가 보여 놀라게 됩니다. 남의 속은 모르고 내 속만 보니 남이 나보다 낫다고 쉽게 믿게 됩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더 알수록 더 사랑하게 될 텐데, 어떻게 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에드워즈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본 만큼'에 맞춰 자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면, 지금 본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다는 사실도 함께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작은 사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 죄의 크기는 내가 마땅히 이르러야 할 높이에서 내 실제 모습까지의 거리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만큼이 모두 죄입니다. 무한히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을 거스른 죄는 가장 작은 것이라도 무한히 추합니다. 반면 피조물의 거룩함은 무한한 가치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니 빛을 받을수록 내 성향은 부패에 비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래서 내 사랑이 너무 작아 보인다
3. 본 것 너머를 확신하기에 무지가 드러난다
4. 죄 = 마땅한 높이와 내 모습 사이의 거리
5. 작은 죄도 무한하신 분을 거스르기에 크다

> **(직접 인용 없음)**
> 이 단락은 논리로 전개된다. 결론은 다음 절의 마태복음 18:4로 이어진다

📜 8. 참 빛은 부패를 드러낸다

에드워즈는 자신이 만난 많은 사람이 화려한 '깨달음의 체험' 덕분에 마음의 부패가 사라진 듯 느꼈다고 전합니다. 과거 죄에 대해서는 크게 울었지만, 지금 남아 있는 악에 대한 불만은 체험이 덮어 버렸습니다. 에드워즈는 이것이 그 체험이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합니다. 더러움을 숨기는 것은 어둠의 일이고, 빛은 구석에 숨은 더러움까지 드러냅니다. 물론 참된 깨달음도 한동안 시기·탐욕·불평이 겉으로 터져 나오는 것을 억눌러 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랑과 겸손과 감사가 '더 없다'는 결핍을 환히 드러냅니다. 하늘의 성도들이 우리의 가장 뜨거운 찬양을 본다면 얼마나 작게 보일지 상상해 보라고도 합니다. 그것이 작게 보이는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상의 성도도 은혜가 생생할 때는 자신이 자유롭고 나아졌음을 압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신의 현재 악함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고, 가장 낮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1. 부패를 덮는 체험은 빛이 아닌 어둠
2. 참 빛은 숨은 더러움을 찾아낸다
3. 은혜는 '없는 사랑과 감사'를 보게 한다
4. 하늘 성도 눈엔 우리 최선도 작다
5. 은혜가 생생할 때 가장 낮아지고 싶다

> **마태복음 18:4**
>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가장 큰 자는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낮추는 사람

>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 9. 참 지식은 무지를 깨닫게 한다

에드워즈는 참된 성도가 자신에게 은혜가 있음을 알 수는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남보다 탁월하다는 것은 쉽게 알지 못합니다. 애써 따져서 그렇게 결론 내려도 그 확신은 곧 사라지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도 어색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이 먼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은 교만에 지배받고 있다고 단언합니다. 그 생각이 습관이 되었다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체험, 남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다는 자만을 채우는 체험은 헛것입니다. 아굴은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달은 바로 그때 자신을 짐승처럼 무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명철이 모든 스승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두 가지로 답합니다. 첫째, 직접 영감을 받은 선지자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받은 특별한 계시를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원수를 저주한 기도를 우리가 따라 하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다윗이 말한 지식은 영적 거룩함의 지식이라기보다 메시아에 대해 계시받은 지식일 수 있습니다.

1.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먼저 들면 위험 신호
2. 교만하게 하는 체험은 헛것이다
3. 아굴: 하나님을 볼수록 내 무지를 봄
4. 다윗의 말은 영감받은 선지자의 특수한 경우
5.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가 낫다

> **고린도전서 8:2**
> 안다고 생각하는 자는 마땅히 알 것을 아직 모른다
>
>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본 아굴이 자기를 가장 무지한 자로 고백

[2]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3]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4]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 3:7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로마서 12:16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이사야 5:21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잠언 26:12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미련한 자에게 더 소망이 있다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시편 119:99~100

반론의 구절 — 에드워즈는 영감받은 선지자의 특수한 경우로 답함

[99]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100]주의 법도들을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모든 참된 영적 지식은 본질상 사람이 그것을 더 많이 알수록 자기 자신의 무지를 더 많이 인식하게 한다.”

📜 10. 영적 교만의 둘째 표지: 내 겸손을 높이 친다

둘째 표지는 자기 겸손을 대단하게 여기는 성향입니다. 거짓 감정은 높아질수록 “나는 참 겸손해졌다”는 생각을 낳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은 반대로 겸손에 목마르게 하고, 남은 교만을 크게 보게 합니다. 에드워즈는 비유로 설명합니다. 높은 사람이 동등한 사람의 신발끈을 풀면 겸손해 보입니다. 하지만 노예가 왕의 신발끈을 맨 뒤 “나 참 낮아졌다”고 한다면, 모두가 “너를 뭐라고 생각하기에?”라고 꾸짖을 것입니다. 겸손을 크게 느낀다는 것은 출발점, 곧 '내 원래 자리'를 높게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가장 낮아졌을 때도 아직 있어야 할 자리보다 높다고 느끼고, 그 거리를 '교만'이라 부릅니다. 죄를 깨닫는 일도 같습니다. 죄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자기 깨달음이 크다고 여기지 않고, 자기 죄가 크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 교만을 남의 교만보다 먼저 봅니다. 반면 위선자는 형제 눈의 교만의 티끌은 빨리 보고, 옷차림 등을 트집 잡으며, 자기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1. 둘째 표지: 내 겸손을 대단하게 여김
2. 노예와 왕의 신발끈 비유
3. 겸손을 크게 느낌 = 내 자리를 높게 잡음
4. 깊이 깨달은 이는 깨달음보다 죄를 크게 본다
5. 남의 티끌보다 내 들보를 먼저 본다

> **마태복음 7:3**
> (본문의 티끌·들보 표현이 가리키는 말씀) 남의 교만만 보는 위선자
>
>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를 가장 낮게 여기는 이가 큰 자 — 겸손을 셈하지 않는 마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는 자신의 겸손을 포착하는 것보다 교만을 포착하는 속도가 천 배 이상 빠르다.” (장 전체 기억할 문장 2번째)

📜 11. 가짜 겸손은 요란하다 — 그리고 자기 점검

자기 겸손을 높이 치는 사람은 겸손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겸손에 대해 길게 말하고, 표정·몸짓·초라한 옷차림·특이한 행동으로 보여 주려 합니다. 구약의 거짓 선지자, 위선적인 유대인, 금식하며 얼굴을 흉하게 한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참된 겸손은 시끄럽지 않고 거칠지 않으며 고요합니다. 에드워즈는 이 문제를 길게 다룬 이유를 밝힙니다. 참 겸손과 가짜 겸손을 가르는 데 결정적이고, 하나님은 남보다 낫다고 여기는 자를 코의 연기처럼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독자에게 직접 점검을 권합니다. 내가 남보다 나은 성도라는 생각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나쁜 징조입니다. “아니요, 저보다 나쁜 사람은 없어요”라고 답했더라도, 그렇게 낮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남보다 낫다고 여기지 않는지 다시 보라고 합니다. “저는 마귀만큼 교만해요”라고 답했더라도, 그렇게 인정한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겸손하다고 여기지 않는지 또 보라고 합니다.

1. 가짜 겸손은 보여 주려 한다
2. 참 겸손은 조용하고 잠잠하다
3. 하나님은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를 미워하심
4. “나는 최악”이라는 말도 다시 점검하라
5. 자기 점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스가랴 13:4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이사야 58:5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는 위선적 금식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마태복음 6:16~17

금식할 때 오히려 얼굴을 씻으라 — 드러내지 않는 겸손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골로새서 2:23

몸을 괴롭히는 꾸민 겸손은 지혜 있는 '모양'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레미야애가 3:28

참된 참회자는 혼자 앉아 잠잠함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잠언 30:32

스스로 높였거든 손으로 입을 막으라 — 침묵의 겸손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체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이사야 65:5

남보다 거룩하다 하는 자는 하나님 코의 연기

>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에스겔 16:56

예루살렘이 소돔을 업신여긴 것을 교만의 실례로 지적

> 네가 교만하던 때에 네 아우 소돔을 네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 12. 심령이 가난한 사람 — 깨어진 옥합

에드워즈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그립니다. 가난한 사람은 거칠게 대답하지 않고 간청합니다. 쉽게 분개하지 않고 양보하며, 무시당해도 견딥니다. 윗사람의 책망을 조용히 받고, 남의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며, 자기 판단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에드워즈는 마스트리히트의 말을 빌려 겸손을 “거룩한 무기력”이라 부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집 문 앞의 거지로 계속 남습니다. 거짓 감정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부자여서 쌓아 둔 것으로 살 수 있다고 여깁니다. 이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거만하고 뻔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다고 믿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되, 그들의 죄를 인정하는 듯한 인상은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고, 바울은 베스도를 “각하”라 불렀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 복을 받은 바로 그때, 자신을 핍박한 에서에게 일곱 번 절했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향유가 담긴 옥합입니다.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흘러나오듯, 거룩한 감정도 깨어진 심령에서 흘러나옵니다. 성도의 사랑과 소망과 기쁨은 아무리 커도 겸손한 것이고, 그를 더 가난하고 더 어린아이같이 만듭니다.

1. 겸손한 이는 가난한 자처럼 산다
2. 하나님 집 문 앞의 거지로 남는다

4. 믿지 않는 이와 원수까지 공경한다

5. 옥합이 깨어져야 향기가 난다

로마서 4:1~2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의 자랑도 막는다

[1]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시편 131:1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눈이 높지 않다 — 겉모습까지 겸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잠언 6:16~17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의 첫째, 교만한 눈

[16]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곱 가지이니 [17]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고린도전서 13:4

사랑은 자랑하지도 교만하지도 않는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베드로전서 3:15

소망을 설명할 때에도 온유와 두려움으로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창세기 33:3

복을 받은 야곱이 자신을 핍박한 에서에게 일곱 번 절함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누가복음 7:37~38

눈물과 머리털로 발을 씻은 여인 — 깨진 심령에서 흐르는 감정

37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은혜로운 감정은 깨진 심령에서 흘러나온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복음적 겸손

하나님의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의 무능과 추함을 알아, 마음까지 기꺼이 낮아진 상태입니다.

율법적 겸손

하나님의 위엄과 율법 앞에서 죄책과 무력함은 깨닫지만, 마음의 교만은 그대로인 상태입니다.

외방 우체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성령의 도움으로, 양심을 일깨우는 일 등을 합니다.

특별 은혜
성령께서 사람 안에 새 원리를 심어 본성을 바꾸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기 부인
세상 욕심뿐 아니라 나를 높이려는 마음과 자기 영광을 기꺼이 내려놓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자기 의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선함이 내게 있다고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영적 교만
신앙적인 것(체험, 지식, 겸손까지)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교만입니다.

율법적 영
무엇이든 내 선함을 의지하는 마음. 에드워즈는 이것을 영적 교만과 같은 것으로 봅니다.

위선자
이 책에서는 남을 속이는 사람만이 아니라, 은혜가 있다고 스스로 믿지만 실제로는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앙고백자
신앙을 고백하고 교회에 속한 사람. 참 성도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 거짓과 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은혜로운 감정은 반드시 복음적 겸손을 동반하고, 겸손이 없으면 아무리 뜨거운 감정도 참 믿음이 아닙니다.
- 영적 교만은 겸손의 얼굴로 숨기에, 두 표지로 찾아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해 나를 높이는 것, 내 겸손을 높이 치는 것입니다.
- 은혜와 빛이 클수록 하나님은 더 크게, 내 사랑과 겸손은 더 작게, 내 부패는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집 문 앞의 가난한 거지로 남고, 사람 앞에서도 온유하게 모든 이를 공경합니다.
- 거룩한 감정은 모두 깨어진 옥합 같은 상한 심령에서 흘러나와 그리스도께 향기가 됩니다.

🎬 이 장을 쓰는 편

- 신앙감정론 17편 · 낮아질수록 진짜다 · 표지 6 복음적 겸손 (준비 중)

빛다방 학습 노트 ·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부흥과개혁사, 정성욱 역)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표지 카드 문장은 1746년 영문 원문(공유 저작물)에서 새로 옮겼습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